

## 3野 '5·18 왜곡' 강력처벌 法 만든다

'5·18 특별법 개정안' 공동 대응키로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도

### 올해 내 통과 가능성 높아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제정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 공조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정의당이 각각 당론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에서의 병합 심리를 통해 하나의 개정안을 마련, 본회의 통과까지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정에 동의한데다 5·18 민주화운동의 비방·왜곡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5·18 특별법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올해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당 최경환 원내 기획 부대표는 지난 7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원내 기획 부대표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훈 부대표는 9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 당론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인 이계호 의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공식 제기한다. 이 의원은 "비대위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일부 극우단체들의 5·18과 특정 지역 편파가 도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당권 도전에 나서는 추미애 의원 등 더민주 소속 의원들도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담양 창평현 바로알기 '골든벨'

8일 오후 담양 고서면 고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창평현 바로알기' 제11회 도전 골든벨에서 유성복장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문제를 유심히 듣고 있다. 고서·남면·창평·만덕·사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에서도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 및 야권 공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공조는 물론 새누리당이 함께 할 경우 국민대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은 여야를 떠나 시대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정신"이라며 "5·18 특별법 개정안에 여야가 함께 한다면 그레도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5·18 민주화운동 펠레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극우성향 인터넷 언론 발행인과 지만원씨 등 극우 논객 3명

을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일부 극우 매체와 극우 인사들이 원색적이고 인신공격성 비난에 나서고 있다"며 "광주시와 5·18 단체들도 극우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즉각 법적인 조치에 나서서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마리안느·마가렛 수녀 대한민국 명예국민 됐다

한센인 돌봄 '소록도 천사'

히딩크 감독 이어 두 번째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가 '명예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법무부는 8일 대회의실에서 40여 년간 고흥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던 마리안느 스토거(82) 수녀와 마가렛 피사렛(81) 수녀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했다.

명예국민증은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이나 국익 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2002년 7월 월드컵 4강 진출 주역인 거스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수여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수녀에게는 명예국민 메달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긴 '심장생 자개 병풍'이 함께 수여됐다.

명예국민증 수여에 따른 별도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없다. 다만 법무부는 출·입국때 전용 심사대 이용 및 장기 체류 희망 시 즉시 영주자격 부여 등 수녀들에 최대한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병원 간호교를 졸업한 두 수녀는 소록도



마리안느 수녀 마가렛 수녀

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60년대에 입국했다. 이후 40여 년간 거주하며 한센인들의 간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 오랜 세월 봉사했지만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았다.

공로를 인정받아 1972년 국민훈장, 1983년 대통령표창,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받기도 했다.

두 수녀는 70대의 노인이 된 자신들이 소록도에 부담이 될까 불편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2005년 조용히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40여 년간 한센인들의 손과 발이 돼 사랑과 봉사를 펼친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靑 정무수석에 김재원...수석 3명·차관 3명 교체

미래 현대원·교육문화수석 김용승

통일부 김형석·환경부 차관 이정섭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준원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무·미래전략·교육문화 수석 등 3명의 수석을 교체하고 통일·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3개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프롤 2면

박 대통령은 이날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친박(親朴·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인 김재원(52·경북 의성) 전 의원을 발탁했다. 또 미래전략수석에 현대원(52·제주)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교

육문화수석에 김용승(61·대구) 가톨릭대 교학부총장 겸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형석(51·순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이정섭(53·충남 보령)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각각 통일부 차관과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이준원(54·충남 아산)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 차관은 처가가 광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위태로운 도서벽지 근무자들 ▶ 6면  
그림편지-나주 죽설현 박태후 ▶ 18면

## 국회의장 더민주, 운영위·법사위원장 새누리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합의 ... 국회의부의장 새누리·국민의당

상임위장 8:8:2 배분 ... 국민의당, 교문위·산자위 맡기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8일 제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전격 합의했다.

최대 정적이었던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갖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명의 국회의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하나씩 맡기로 합의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운영·법사위 외에 기획재정·정무·안전행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정보·국방위원장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1석 차이로 원내 제1당인 더민주는 예산결산특별·환경노동·외교통일·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여성·윤리위원장 등 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국민의당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장이 배

정됐다.

이 밖에 여야 3당은 복수 부처 소관 상임위의 범안소위를 복수화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일기 개시 열흘 만에 마무리했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며, 13일에는 개원식을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심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4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